

외모관련특성에 따른 토탈코디네이션 연구

염인경·김미숙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상학 전공

1. 서론

오늘날 생활의 여유는 자아의식의 발달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정신적, 신체 내적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신체 외적인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 욕구도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신체의 외모는 그 개인, 특히 여성에게 중요한 요소로서 자신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호의적인 인상을 창조하려 한다.

경제가 윤택해지고 생활이 안정됨에 따라 인간이 단순히 의복을 착용하고 화장을 하며 머리모양을 결정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장소, 시간, 상황에 맞는 의복, 화장, 헤어스타일을 선택하고 이를 토대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토탈코디네이션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혈액형 및 외모관련특성에 따라 토탈코디네이션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혈액형 및 외모관련특성에 따라 토탈코디네이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의류산업체에는 소비자를 세분화하여 소비자 개개인을 만족시키고 미용업계에는 보다 고객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1) 외모관련특성(혈액형, 체형, 얼굴형, 피부색)에 따른 토탈코디네이션 정도를 알아본다.
- (2) 외모관련특성에 따른 토탈코디네이션 행동을 조사한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는 20~35세의 여성 650명을 대상으로 편의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3년 11월 3일부터 11월 18일까지 100부의 설문지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한 후 2003년 12월 18일부터 2004년 1월 13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결과분석에는 500부가 사용되었다.

3. 측정 도구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설문지는 토탈코디네이션 정도에 관한 문항,

토탈코디네이션 행동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문항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 적절하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통계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11.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일원분산분석, χ^2 -test를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각 문항에 대해 Cronbach' α 를 산출하였으며, 사후 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test를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결론

본 연구는 20~35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혈액형, 체형, 얼굴형, 피부색 등의 외모관련특성에 따른 토탈코디네이션 정도 및 토탈코디네이션 행동을 연구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혈액형에 따른 토탈코디네이션을 살펴보면 A형은 외출할 때 바탕화장+눈썹펜슬+립스틱 정도로 화장을 하고 클래식 스타일의 의복을 착용하며 무색(투명)의 매니큐어를 사용하였고, B형은 핑크계열의 매니큐어를 바르고 바탕화장+눈썹펜슬+립스틱+아이세도+마스카라+아이라이너+치크(불화장)의 완벽한 화장을 하였으며 엘레강스 스타일, 로맨틱/아방가르드/매니쉬 스타일의 의복을 착용하고 외출하였고 의복색상 및 스타일에 맞추어 신발을 신는 경향이 높았다. O형의 경우에는 클래식 스타일과 로맨틱/아방가르드/매니쉬 스타일의 의복을 외출할 때 즐겨 착용하고 오렌지/화이트/레드/베이지 계열의 매니큐어를 선호했으며 기초화장+파운데이션+파우더 정도의 바탕화장을 하였으며, AB형은 외출시 클래식 스타일의 의복을 착용하고 바탕화장+눈썹펜슬+립스틱+아이세도+마스카라+아이라이너+치크(불화장)의 완벽한 화장을 하였으며 오렌지/화이트/레드/베이지 계열의 매니큐어를 사용하였다.

(2) 체형에 따른 토탈코디네이션에서 상체와 하체가 모두 빈약한 일자형의 경우 오렌지/피플계의 눈화장과 레드계의 입술화장을 선호하였고 매니큐어는 가끔 바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상체가 발달하고 하체가 빈약한 역삼각형 체형과 상체가 빈약하고 하체가 발달한 삼각형의 체형에서는 평소 매니큐어를 대체로 바르지 않는 경우가 많고 눈화장으로 핑크계를, 입술화장으로 베이지계를 선호하였으며 체형이 모래시계형인 경우에는 상체와 하체가 모두 발달하였는데 그린/블루/화이트계를 눈화장으로, 핑크계를 입술화장으로 사용하였고 평소에 매니큐어를 항상 바르는 경우가 많았다.

(3) 얼굴형에 따른 토탈코디네이션에서 둥근 얼굴형은 진한 갈색의 모발과 파스텔 계통의 클래식 스타일의 의복을 선호하였고, 코디할 때 의복 및 신발의 색상, 스타일을 고려하여 가방을 들고, 의복색상에 맞춰 양말(스타킹) 색상을 선택하여 착용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역삼각형/내모형의 얼굴에서는 원색 계통의 로맨틱/아방가르드/매니쉬 스타일의 의복을 입고 검정색/보라, 와인색을 모발 색상으로 선호하였고 코디시 의복스타일에 맞추어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주었다. 얼굴형이 달걀형인 경우 모발색으로 본래 자신의 모발색인 자연색을 선호하고 베이지 계통의 엘레강스 스타일의 의복을 즐겨 착용하였으며 코디할 때 의복 및 신발의 색상, 스타일을 고려하여 가방을 들고, 의복스타일에 맞추어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주며, 스카프 및 목도리, 양말(스타킹) 색상, 헤어핀, 헤어밴드 등의 악세서리, 선글래스, 안경을 착용하는 등 토탈코디네이션에 가장 민감하였고, 긴 얼굴형은 베이지 계통의 클래식 스타일의 의복과 검

정색/보라, 와인색과 진한 갈색의 머리를 모발색으로 선호하였으며 의복 및 신발의 색상, 스타일을 고려하여 가방을 선택하였다.

(4) 피부색에 따른 토탈코디네이션을 살펴보면 흰 편인 피부색을 지닌 경우 짧은 길이(숏컷)의 생머리에 부채색 계통의 의복과 눈화장과 입술화장으로 베이지계를 선호하였지만 실제 외출할 때는 기초화장만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코디시 의복색상 및 스타일에 맞추어 신발을 착용하고 헤어스타일, 화장의 색상, 귀속속 악세서리, 스카프, 모자, 양말(스타킹), 헤어 악세서리에 변화를 주는 등 토탈코디네이션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피부색이 붉은 색을 띤 편인 경우에는 외출시 기초화장+파운데이션+파우더 정도의 바탕화장을 하고 중간 길이(단발 길이)의 웨이브 형태의 헤어스타일을 하며 파스텔 계통의 의복과 핑크계의 눈화장, 입술화장을 선호하였고 코디할 때 의복색상 및 스타일에 따라 헤어핀, 헤어밴드 등의 악세서리를 달리하여 선택, 착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노란 빛을 띤 편인 피부색은 브라운계를 눈화장, 입술화장 등 색조화장색상으로 선호하고 원색 계통의 의복을 입고 중간 길이(단발 길이)의 생머리 스타일을 하며 외출시 바탕화장+눈썹펜슬+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아이라이너+չ크(불화장)의 완벽한 화장을 하였고 코디할 때 의복색상 및 스타일에 맞추어 신발을 신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피부색이 검은 편인 경우에는 외출할 때 바탕화장+눈썹펜슬+립스틱 정도로 화장을 하고 헤어스타일이 중간 길이(단발 길이)의 생머리와 긴 길이의 생머리, 원색 계통의 의복, 그린/블루/화이트계의 눈화장, 오렌지/퍼플계의 입술화장을 선호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살펴보면 20-35세의 여성들은 혈액형 및 체형, 얼굴형, 피부색에 따라 토탈코디네이션 정도 및 토탈코디네이션 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혈액형과 얼굴형에 따라 즐겨 착용하는 의복의 스타일에 차이가 있었고 혈액형과 얼굴형에 따라 외출시 화장정도가 달랐으며 얼굴형과 피부색에 따라 선호하는 의복의 색상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얼굴형에 따라 선호하는 모발 색상이 달랐고 체형과 피부색에 따라 선호하는 눈화장 색상과 입술화장 색상에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체형에 따라 매니큐어 사용여부가 달랐고 혈액형에 따라 매니큐어 선호색상이 달랐다. 특히 얼굴이 달걀형이면서 흰 피부를 지닌 경우 토탈코디네이션에 가장 민감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의류업체에서는 옷을 디자인, 생산하고 미용업체에서는 제품 생산 및 고객 개개인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지영 (2002). "한국여성의 토탈패션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숙 (2002). "패션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윤경 (2003). "여대생의 성격유형에 따른 헤어스타일과 헤어 컬러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수현 (2003). "얼굴형과 메이크업 컬러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은순 (2002). "일반인이 지각하는 피부 미용관리에 대한 주관성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희선, 박화순 (2000). *아름다운 여성을 위한 패션 코디*. 서울: 경춘사.
- 유송옥, 이은명, 황선진 (1996). *복식문화* 서울: 교문사.
- 임희진 (2000). "토탈코디네이션을 위한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진아, 강근영, 이현주, 전연숙, 송승연 공저 (2002). *토탈 코디네이션*. 서울: 훈민사.
- Cutting, P., Ross, R. and Hill, R. (1991). *Hairdressing*. Pitman Publishing.
- Desmond Morris (1986). *Body watching*. Bumyangsa.
- Pancer, S. M. and Meind, J. R. (1978). "Length of hair and beardedness as determinants of personality impression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Vol. 46.
- Peterson, K. and Curran, J. P. (1976). "Trait attribution as function of hair length and correlates of subjects preferences for hair style." *Journal of psychology*. Vol. 93 No. 2.
- Valkovic, V. (1988). *Human hair, vol. 2, Trace element levels*, Boca Raton, Fla.: CRC Press.